

내일이 있는 생활



Vol. 156 2021 Spring



**N**  
MAGAZINE N



# LIVING AND ENVIRONMENT



나를 둘러싼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좋은 삶

<매거진 N>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생각을 탐색하는 라이프스타일 계간지입니다. 우리는 쾌적한 일상의 가치를 탐구하고, 다양한 생활환경과 도시환경 그리고 소중한 지구환경 그 이상의 이야기를 유연하고 담백하게 풀어냅니다. <매거진 N>은 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 경동나비엔이 함께 만들고 무료로 배포합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희망은 어디에나 있다.

## Letter from N

팬데믹과 기후변화의 시대, 환경을 말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신문 기사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탄소중립에 관한 이슈도 돌아서면 그뿐,

바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구의 위기나 미래의 종말 같은

거창한 이야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멀게만 느껴지기도 해요.

아마도 그저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일조차 힘겨울 때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구가 조금 뜨거워지는 게 무슨 대수라고, 이대로 조금 더 편리하게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지,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대로 각자 행복하면 그만 아닌가? 하는

빠죽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변화는 대부분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불과 지난 1년 사이에 국경은 폐쇄되고, 우리 모두 집에 갇혀버린 것처럼 말이지요.

멍하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옷을 입는 무심한 일상도

언제 무너져버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속에 어떤 물질이 들어 있고,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면요.

전례 없는 혼란과 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번호 <매거진 N>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위기, 내일이 있는 생활을 내다봅니다.

다가올 내일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함께 세상을 바꾸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사소하지 않게, 나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도록 해요.

참 고마운 오늘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 사소한 일이라도

# 사소하지 않게



# Contents

생활 속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은 물론 가정에서의  
실천적 의지가 시급히 작동되어야 한다.

-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 김동환 박사



08



18

도심에 식물을 들여오면  
자연이 멀리 떠나가 있는 것  
같아도 다시 돌아와요.

-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

이 작은 도시가 독일의 환경 수도라 불리는 이유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자연 친화적 삶에서 찾을 수 있다.

- 수필가 신미경



26



42

바람과 물, 호흡하는 공기에도  
흐름이 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순리대로 흘러야 조화롭다.

무엇을 요리한들, 모든 공간이  
쾌적한 우리 집이 청정 구역♥

- 밀키베이비 김우영 작가



58

## Insight

기후 위기, 탄소제로 길목에서 가정의 행동 변화

08

## Change Maker

생활 안으로 식물을 들이는 일,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

18

## Living City

CO<sub>2</sub> 다이어트를 하는 생태 도시, 프라이부르크

26

## Living Home

집밥 짓는 풍경

35

## Mind

나를 숨 쉬게 하는 집

42

## N. Lab

생활환경 실천 연구소

46

### Test

에코 지능 레벨 업! 낱말 테스트

47

### Item

건강한 생활에 진심인 편

48

### Idea

도시의 안녕을 지키는 트렌드 보고서

52

### To Do

당신의 나무를 세어보아요!

54

## Dictionary

알아두면 참 좋아요~ 친환경 인증 마크 꼼꼼 사전

56

## N. Toon

엄마, 재가 연기를 다 먹어요!

58

## Review

힘내요, 우리 지구! 캠페인 후기

60

# 2021

# CO<sub>2</sub>

## Mackenzie River

매켄지강, 노스웨스트 준주, 캐나다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 대학교 Simon Fraser University

연구팀은 매켄지강의 얼음이 붕괴되는 것에서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는 북극의 빙하가 예상보다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 원인에 얽혀 있는 복잡한 퍼즐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구는 따뜻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확실하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 기후 위기, 탄소제로 길목에서 가정의 행동 변화

세계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다른 나라 아이들의 하늘은 파란색이지만 우리나라 어린이가 그린 하늘은 회색빛이었다. 날이 갈수록 그 색은 점차 어두워지고 있다.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후, 우리나라도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저탄소 생활을 실천해야 하는 지금, 각 가정에서 CO<sub>2</sub> 배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고찰해본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다.



글. 김동환 박사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

# Insight

**지구가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

2021년 봄, 벚꽃 개화 시기가 기상 관측 이래 99년 만에 가장 빨랐다. 봄은 세계질풍 가장 사랑받는 계절이지만, 그 봄이 성큼 문지방을 넘어 빨리 온다는 사실에 기쁨과 환희보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먼저 엄습한다. 영남 지방에서 자라던 사과나무가 복상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열대 과일나무들이 우리나라 땅에서도 재배된다. 바다에서는 서민들의 겨울철 먹거리인 명태 대신 열대성 어류가 그물망에 잡혀 올라온다는 뉴스도 이제는 식상한 소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기상 관측 사상 가장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해 피해액의 3배에 이르는 1조 2,585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5호 태풍 '장미'를 시작으로 한 달 사이 '바비', '마이삭', '하이산' 등 4개의 태풍이 잇달아 한반도를 난타하며 피해를 주기도 했다. 2020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의 중요성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 지구는 기후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급기야 코로나19라는 신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이 인류를 덮치고 말았다.

**대한민국, 기후위기대응은 세계 61개국 중 53위**

지구의 총체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녹색성장', '그린뉴딜', '지속 가능한 발전' 등 그럴싸한 구호가 내걸렸지만 아직도 우리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 위기의 지구를 위한 노력과 자구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와 세계는 '리우선언'을 시작으로 녹색성장, 기후변화, 탄소제로, 저탄소, 온실가스, 그린뉴딜 등의 신조어를 구호처럼 선포하고 실천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키워드의 공통점은 지구의 미래를 염려하는 자아 반성을 전제로 한 인류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실행 약속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을 선포한 이후에도 기후변화 정책 등에 대한 전략에 소극적이었고, 실행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 결과 2020년 독일 민간 기후 연구소 '저먼워치 Germanwatch'와 국제 환경 단체 연합체 기후행동네트워크 CAN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평가지수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에서 100점 만점에 26.75점을 받아 61개 나라 중 58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2021년은 53위를 기록하며 지난해에 비해 조금 상승했지만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매우 미흡 Very Low'한 단계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행 수단 강화와 행동 변화가 필요한 시기**

좋은 사회는 극심한 가난이 종식되고, 불평등에서 평등으로 변화하며, 차별 없이 발전적 희망이 보이는 사회이다. 또한 서로를 신뢰하고, 도덕적으로 자율 규범이 형성되며 모든 관계층이 상호 지원을 통해 도움을 준다. 동시에 자연과 공존하는 깨끗한 사회를 말한다. 좋은 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오늘날의 필요도를 충족시키는 개념으로, 사회의 경제 발전과 환경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의미한다.

**네트 제로 Net Zero**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흡수하는 대책 마련으로 배출량을 '0'인 상태, 즉 실질적 중립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 생활 속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실천법

- Action 01 저장된 이메일 10퍼센트 삭제하기
- Action 02 하루 한 장 모바일 영수증 실천
- Action 03 잠들기 전 동영상 스트리밍 끄기
- Action 04 자주 찾는 사이트는 즐겨찾기 등록
- Action 05 프린터 절전형 멀티탭 사용하기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변화는 세계 여러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주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 역시 단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정책 수단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은 2021년도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정부가 전략적 주제로 선정한 탄소제로화, 지속 가능한 발전, 녹색성장, 신그린뉴딜 등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행 수단 강화와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이 앞서 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창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 ‘탄소제로 이행 의지’라는 생활 속 변수

2019년 이례적으로 감소했던 국내 에너지 소비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빠르게 감소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한 수치다. 팬데믹 사태로 수송과 산업 부문은 에너지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는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에너지의 93.5퍼센트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국이다.

올해는 경제·사회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국내 에너지 소비도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택배 물량이 폭주하고 포장용 폐기물과 폐마스크가 증가할수록 우리 앞에 닥친 위기에 대응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절실하다. 생활 속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기업은 물론 가정에서의 실천적 의지가 시급히 작동되어야 한다. 각 가정에서 탄소제로화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생활 속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냉·난방, 온수, 에어컨, 주방 기기의 주요 에너지원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에너지를 태양열에너지와 지열에너지, 지역 공동체를 통한 소수력과 폐기물을 연료화한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간접적인 방법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특히 가정용 보일러 기기는 적은 에너지로 용량을 충당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저감형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환경부는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대기관리권역 내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환경 개선 효과를 얻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사용은 도심 속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호모 클리마투스’ 시대

지금은 바야흐로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는 ‘호모 클리마투스(Homo Climatus)’ 시대이다. 이는 프랑스 고인류학자인 파스칼 피크(Pascal Picq)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인류가 자초한 이상기후에 대비해 의식주 등 생활 방식을 바꾸는 인간을 뜻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위기는 국가 정책의 강력한 실행 의지와 더불어 개개인의 행동 변화도 절실한 상황이다. 기후변화, 탄소저감, 온실가스, 대기오염, 먹거리 위기, 질병 등은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며 개별적 현상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실하지도 않고, 실행력이 취약하며, 방법론도 미진한 게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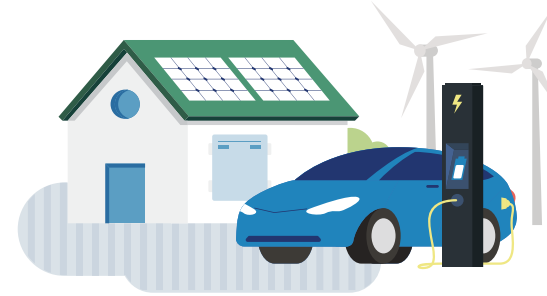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생활 패턴도 반드시 호모 클리마투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선 소비자 스스로 플라스틱 사용과 일회용품 소비를 줄여 생산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있다. 소비자의 생활 방식 변화로 기업들이 제품 포장이나 패키지를 간소화하고,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인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연간 11.8톤으로 세계 평균보다 약 2.5배 많다고 한다. 종이컵의 탄소발자국은 11그램, 과자 한 봉지는 250그램, 형광등 1,000시간 사용 시 3만 4,000그램, 휘발유 1톤 생산 시 57만 7천 500그램 등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발자국을 남기고 있는지 그 수치를 알아봐야 할 때다. 각 가정에서 생활 방식 개선을 통해 탄소발자국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지구에 닥친 위기도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작 일상생활 속 실천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이가 많다. 하지만 환경의 변화는 절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하나의 방향성으로, 오랜 기간 함께 노력하고 지속해나가야 할 생존의 문제다.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 지금이라도 지구의 아픔에 관심을 가진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 내일이 있는 생활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저탄소 키워드



### 내화·단열 기술을 강화한 제로 에너지 하우스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고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노력으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최근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건축이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로 떠오르고 있다.



###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도시 숲

미세먼지 차단 숲은 노후 산업 단지나 도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도심 내 생활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



### 에너지 손실 걱정 없는 환기로 공기질 관리

전열교환기 환기장치는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공기를 걸러 안으로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실내외 공기 온도 차이를 줄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게 해준다.



###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정책과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노후 보일러를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면 1대당 2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각 지자체 별 예산 소진 시까지 / 거주 지역 시, 군, 구 환경 관련 부서로 문의





# Oh Kyung Ah

“정원을 디자인하는 일은 한 번 심은  
식물이 영원히 자라도록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경관을 예쁘게 연출하는  
일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정원생활’입니다.  
각자의 주거지 안에서 정원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죠.”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



글. 박서연

## Change Maker



16년간 하던 방송작가 일을 훌연히 내려놓고 영국으로 가든 디자인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 7년의 시간을 보내고 시골 마을 정원학교로 돌아온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는  
 무엇을 할 힘과 하지 않을 힘을 구분할 줄 아는 정원생활자다.

# 생활 안으로 식물을 들이는 일

정원학교가 있는 이곳 도문은 속초에서도  
가장 오래된 마을이라고 들어요.

예전에는 제가 오래된 것들을 좋아하는지  
잘 몰랐어요. 영국에서 조경학을 공부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오래된 전통을 지키는 일이  
곧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라고  
배웠거든요. 이유와 근간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뿌리를 모르는 채 무언가를 발전시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임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문화적 근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죠.

이 집을 고를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원래는 150년 전 양양에 지어진 한옥인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 다시 조립한 걸 개조해서  
살고 있어요. 한옥은 디자인이나 기능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사람과 생활, 기후와  
잘 어울리게 발전해왔어요. 허물지 않고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요즘은 '시간은 정말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흐르는 것이 맞나?'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요.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어떤가요? 식물의 계절은  
봄이 아니라 가을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봄이 있으려면 가을에 이미 월동 준비를  
마쳐야 해요. 지금 저기 보이는 모든 식물이  
이미 가을에 심어놓은 아이들이 올라온 거예요.

알뿌리나 씨앗도 마찬가지로요. 가을에  
시작해놓지 않으면 봄이 오지 않았겠지요.  
식물 입장에서 보면 가을은 생명주기의 끝인  
동시에 씨앗을 얻는 시작점인 셈이에요.

식물을 다루고 흙을 만지는 것은 몸을 쓰는 일이지만,  
결국 정신을 위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이 예상하시는 것과 달리 가든 디자이너는  
책상에 앉아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다행히 제겐 정원이 있어서 마당에 돌을 깔거나  
식물을 심으려고 땅을 파야 하죠. 정원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전혀 없으면 어떤 날은 진짜  
몸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채로 몸살을  
앓아야 할 때도 있어요.

조경이 건축에 근접해 있다면 정원 디자인은  
예술적 측면이 강한 듯 해요.

하나의 직업 안에 굉장히 다른 여러 분야가  
녹아 있어요. 저 역시 건축과 원예, 디자인을 모두  
공부했으니까요.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원예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학에 가깝기도 하고요. 하지만  
같은 식물을 심더라도 색의 조합과 디자인적  
요소를 가장 많이 고민하죠. 그래서 결국  
순수예술과 가장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질적으로 상상력의 영역인가요?

철저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해요. 사계절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까지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흔히 식물 디자인을 실패하는 이유가 상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건 여름에 피고 어떤 건 봄에 피는데, 두 색상이 같은 시공간에 있을 거라고 상상하면 실수를 하게 돼요. 계절과 환경은 나라마다 다르고, 또 우리집과 옆집이 달라서 자연환경까지 고려해야 하죠. 식물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내 몸으로 터득하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출간 예정인 <식물 디자인의 발견>에도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제가 식물 디자인을 할 때 다른 디자이너들과 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제 경우 정형화된 디자인을 보기 좋게 만든 다음 그것을 오래 유지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정원생활이란 식물을 보기 좋게 한번 심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 안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디자인을 통해 식물을 생활 속으로 끌어오고 싶어요.

누군가 차려준 밥상보다는 식탁을 함께 차리고 같이 맛보는 즐거움과 비슷한 거군요.

그런 의미에서 '정원학교'라는 말이 참 잘 어울려요.

맞아요. 공부를 전제로 한 정원생활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허브 가든을 만들면 어떤 허브를 얼마나 예쁘게 배치할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허브를 따서 말리고 차를 끓여 마시는 건 직접 해야 하는 '생활'이거든요. 그런 정원생활의 즐거움을 더 많은 분이 누려 보셨으면 해요.

아파트와 빌딩 숲에서 살아가는 도시생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시에서 정원을 만드는 개념은 얼마나 크게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그곳을 지나다녔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방식을 바꿔야 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도시의 시민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크기의 공원을 만드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큰 공원을 만들면 그 안에서는 자연 생태계가 생기지만 사람은 소외되기 쉬워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일상생활 속 작은 정원이라면 대중교통이 떠올라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온실로 이루어진 지하철역이 있어요. 꽃이 피어 있는 온실을 통과해야 지하로 내려갈 수 있죠. 우리도 그렇게 생활 속에서 지나가는 공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지역마다 작은 정원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해요. 모든 사람이 도시에서 개인 정원을 갖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니깐요. 집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정원을 지나온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 차이가 있거든요.

도심 속 상업 공간에 옥상 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도시생활자들의 삶을 치유하는 맥락이겠네요.

제가 최근에 한 작업 중 스타필드 시티 옥상 정원이 있어요. 그 건축 현장에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마지막 단계에 옥상 위에 식물이 올라갔는데,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비와 벌이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도심에 식물을 들여오면 자연이 멀리 떠나가 있는 것 같아도 다시 돌아와요. 전문 용어로는 징검다리 효과라고 해요. 고립된 거대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작은 공간이 모여 자연이 도시 안으로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식물만이 아니라 그 식물이 불러들이는 각종 동물이 같이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생태계가 도시 안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공리, 2017

1. 식물, 정원, 역사 등을 한 데 묶은 정원의 실화집이다. 호음이 짧고 종합상식이 많아 간편하게 읽을 수 있다. 아이와 함께 읽어도 좋다.

2. 정원에 대한 인문학적 지식을 쌓고 싶은 독자, 마음은 있어도 지금 당장 정원을 향해 달려갈 수 없는 독자에게 추천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벌써 두 번째 맞이하는 봄입니다.  
팬데믹으로 위기와 좌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식물이 위로가 될까요.  
 식물은 뭐든 다 좋아요. 좋아하는 식물을 집 안에 두세요.  
 짧게 피고 시드는 꽃을 기쁘게 누릴 것인지,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잎을 들일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단 이들을 보고 지더라도 그 시간 동안 더 없는 기쁨을  
 누렸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려고  
 식물을 가까이 두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로 위로를  
 받으며 살다 보면 지금처럼 팬데믹을 겪는 우리 삶에도  
 봄이 꼭 다시 찾아올 거예요.



개인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휴지기가 끝나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휴지기를 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제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더 욕심내는 것보다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 잘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제 삶의 즐거운 페이드아웃을 준비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간 흔적이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왕이면 손톱만큼이라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가기를 기대하면서요.





# freiburg

독일의 환경 수도 프라이부르크



## CO<sub>2</sub> 다이어트를 하는 생태 도시

임미경

©Freiburg Wirtschaft Touristik

# Living City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행복추구권은 편리함이 전부는 아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 그 안에서 누리는 일상이야말로 우리의 바람이 아닐까. 그 가능성을 독일의 환경 수도 프라이부르크에서 배운다.

청정한 공기를 마시고, 조용한 거리를 걷는다. 며칠만 살아도 저절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품게 되는 곳, 바로 전 세계에서 노하우를 배우러 온다는 독일의 생태 도시 프라이부르크다.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이 자동차보다 편리한 이 도시의 시민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불편과 비용을 감수한다. 그들은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삶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한다.

**시민의 힘으로 녹색 도시를 만든다**

독일 남서부 지역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 Württemberg주에 속한 프라이부르크Freiburg는 우리나라 세종시의 인구보다 적은 23만여 명이 사는 작은 도시다. 프랑스와 스위스 근방에 위치한 이 도시는 하늘을 가린 침엽수들이 만든 울창한 숲, 슈바르츠발트Schwarzwald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지중해성 기후로 햇볕이 풍부한 이 도시 시민들은 집보다 바깥에서 활동하길 즐기며 누구보다 숲을 사랑한다. 이 작은 도시가 독일의 환경 수도라 불리는 이유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태양광 등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쓰며, 자원의 대부분을 재활용한다. 시민들이 친환경적 삶에 동의한 역사는 1974년 추진된 원자력발전소 반대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시 근교에 대규모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시민들은 반대하고 나섰고, 대체에너지 사용을 촉구했다. 이런 친환경 운동은 비폭력 저항의 역사로 기록되어 독일에서 관련 다큐멘터리가 제작될 정도였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더욱 견고해진 사회적 합의는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1990년대부터 프라이부르크의 공공 건물은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축물만 허가가 났고, 에너지 절약 램프를 가정에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현됐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 절약에 이르는 친환경 정책을 펼친 결과는 놀라웠다. 1990년대 대비 현재 1인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0퍼센트 가까이 줄었고, 자전거를 타는 비율은 34퍼센트 증가했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10만 그루 이상 나무를 심었다. 이곳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삶의 터전을 지킨 기억을 공유하고 있기에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행동한다. 프라이부르크는 2030년까지 1992년 대비 이산화탄소를 40퍼센트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책과 시민들의 의지가 있으니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FWTM/Eschner





### 자전거가 주인공인 도시 풍경

서울시는 공공 자전거 대여 서비스 ‘따릉이’를 운영한다. 안타깝게도 따릉이를 타고 도심에서 신나게 달리기는 어렵다. 좁은 인도 옆 자전거도로에는 사람이 걷고 있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자동차가 급하게 오가는 길을 아슬아슬하게 달리는 모습도 종종 목격된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프라이부르크의 주요 교통수단은 바로 자전거다. 처음부터 자전거와 전차 노선 중심으로 도심 교통망을 계획해 자동차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단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심으로 진입하기 어렵다. 자동차보다 도보나 자전거, 트램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편리하다. 값비싼 주차비도 한몫한다. 도시 곳곳으로 이어진 자전거도로는 주거 지역과 대중교통인 트램에 접근하기 쉽게 설계됐다. 중앙역 근처에는 1,000대 가까운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 주차장인 모바일레(Mobile)가 있다. 자전거 대여료 또한 저렴하니 외곽에서 차량 공유 형태로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타고 도심 근처에 진입해 자전거로 바꿔 타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등교육으로 자전거를 배울 정도로 프라이부르크에서 자전거는 생활 필수품이지만,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 해도 불편한 점은 없다. 시내 곳곳 보행자 전용 구역이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걸기를 지원한다. 레기오 카르테(Regio Karte)라는 환경 정가권으로 도심은 물론 근교까지 대중교통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나마 운행하는 자동차 역시 전기차를 권장한다. 꽉 막힌 도로, 매캐한 공기, 내연기관 엔진과 경적 소리는 이 도시에서는 낯선 경험이다. 이렇게 탄소 배출을 줄이면 환경 문제 해결 외에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하고, 사람들이 날카로운 소리에 예민해지지 않아 정서적으로 안정되니



여러모로 긍정적이다. 프라이부르크 도심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베힐레(Bächle)라고 불리는 수로 역시 도심에 한가로움을 더하는 풍경이다. 13세기 무렵 중세 때 만든 이 배수시설은 도시의 온도를 낮추고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역할 그 이상의 혜택을 제공한다. 수로에 발을 담그고 노는 아이들, 손을 씻는 사람, 산책하던 강아지가 목을 축이고 가도 괜찮은 여유로운 풍경을 연출한다. 이들의 일상은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로운 삶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 그린 에너지를 생활에 들여오는 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태양에너지만큼 안전하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는 없어 보인다. 프라이부르크는 일조량이 연평균 1,800시간 정도 되는 햇볕이 풍부한 도시로, 태양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갖췄다. 매년 이 도시에서 유럽의 국제 태양에너지 전시회인 인터솔라 유럽(Intersolar Europe)\*이 개최되고, 유럽을 대표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구인 유로솔라(EuroSolar)가 자리 잡은 것도 그런 이유다. 녹색 도시는 축구장 역시 특별하다. 도시의 자랑인 바테노바 축구 경기장은 1995년부터 태양광 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해 현재 프라이부르크 최대 태양광 발전소로 성장했다. 경기장 지붕에는 101명의 시민이 설비 투자금을 지원해 마련한 대형 태양전지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시민들은 해마다 그 이익을 배당금으로 받는다. 흥미롭게도 에너지 시스템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 일거양득 효과를 누리게 된 셈이다. 프라이부르크 도심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파우반(Vauban) 마을 역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생태 주거 단지다. 약 5,000명이 사는 이곳의 주민들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건축한 친환경 주택에 거주하며 태양광발전으로 에너지를 얻는다. 주로 첨단 단열 공법으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한 패시브 하우스다. 태양광 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해 초기 비용이 소요되지만, 냉난방 비용을 줄여주고 잉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다. 지인 중 한 사람도 태양에너지를 쓰는 주택에 산다. 환경 보호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이 많을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 누진세가 부담되는데 전기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말을 들었다.

\*인터솔라 유럽 매년 독일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규모의 태양에너지 전시회

관공서와 학교, 개인건물 외벽 등 프라이부르크 어느 곳에서나 태양광 시설을 볼 수 있다. 이는 태양광 시설 관련 연구가 활발한 도시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 FWTM / Schoenen





대신 흐린 날이나 밤처럼 태양광 전기를 쓸 수 없을 때는 잉여 전기를 비용으로 차감해 저렴하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고 일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지만 아직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보편적이지 않은 태양에너지, 그래도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좋은 도시의 시작은 개인 생활에서 비롯된다**

예전에 나는 기업이 재활용하기 까다로운 용기를 만들면서 개인에게 분리수거 책임을 전가한다고 보았다. 외출할 때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를 보면서 나 하나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환경이 좋아질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일종의 환경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프라이부르크 사례를 통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 좋은 환경은 남이 공짜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를 갖고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처럼 민감하게 환경 문제를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미세먼지라면 지긋지긋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다. 팔짱 끼고 지켜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해결이 시급한 환경 문제를 풀기 위해 동참해야 한다. 나는 오늘도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일상 속에서 조금씩 소비를 줄이며 불편을 감수한다. 문득 우리 집에도 태양광 패널을 달아볼까, 정보를 모으는 순간이 기쁘다.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 FWTM/Schoenen

1,800<sup>hr/</sup>year

프라이부르크는 연간 1,800시간에 이르는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는 태양의 도시이다.

1,117<sup>kW/</sup>m<sup>2</sup>

풍부한 햇볕은 1제곱미터당 1,117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시민들.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이동 수단으로 더 편리한 녹색 도시 프라이부르크에 대해 알아보자.

# BICYCLE

## 자전거로 도시 읽기



약 4만 1,000원  
무기명 정기권으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작은 공원과 수로,  
자전거 타기 좋은  
아름다운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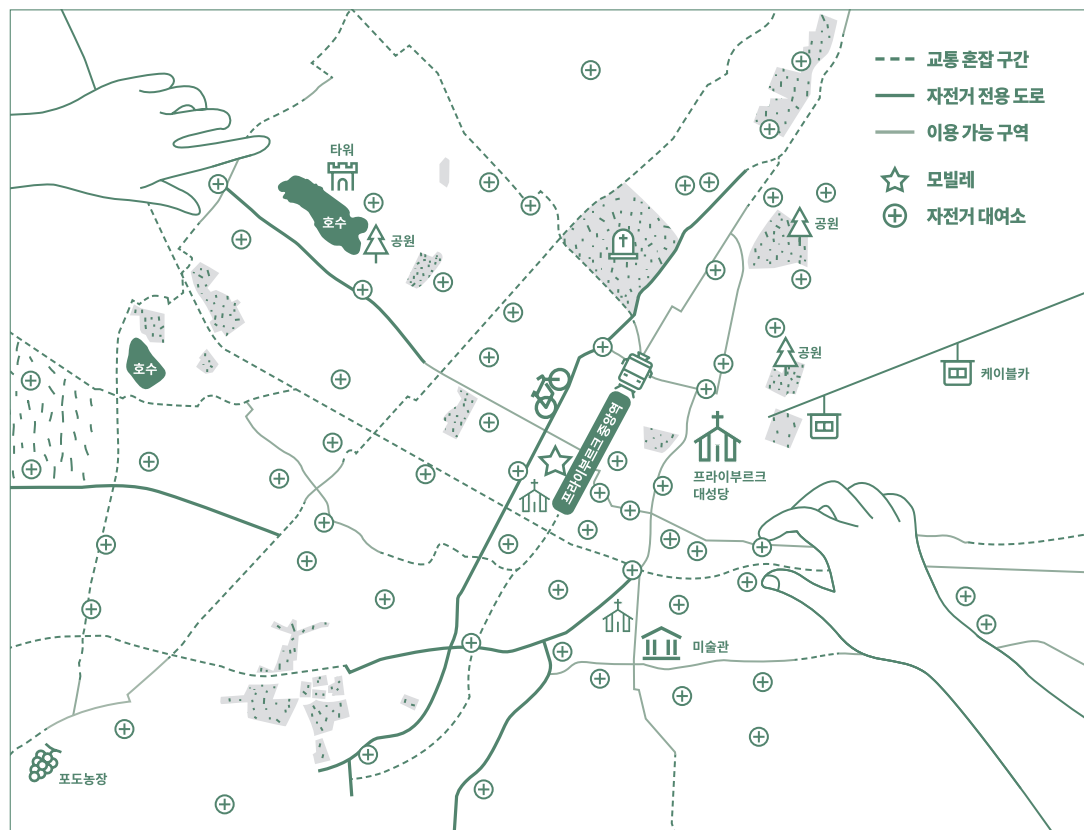
쉽고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자전거  
대여 시스템



자전거 전용 주차장  
'모빌레' 운영



자동차 진입금지구역,  
비싸고 불편한 주차비



글. 신미경

수필가. 일상을 건강하게 가꾸는 일을 즐긴다. 특히 먹거리에 관심이 많아 여러 시장과 농장을 섭렵하며 신선한 식량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다. 주요 저서로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되고 싶어>, <혼자의 가정식>, <나의 최소 취향 이야기> 등이 있다.

무릇 집이란 밥 짓는 냄새가 나는 곳이다.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밥은 이제 단순히 '보편적 허기'를 채우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운 내서 밥을 짓는다. 고단한 하루를 무사히 마친 <매거진 N> 독자 에디터가 싱크대 앞에서 후드를 켜고 한 끼를 준비하는 일상 풍경을 들여다본다.



# 집밥 짓는 풍경



# Living Home



오늘도

꼭꼭



씹는다

만약 뭐든 두 종류로 나누는 법이 생겨서, 밥을 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해야 한다면 망설임 없이 ‘그렇지 않다’ 쪽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다고 집밥을 싫어한다는 말은 아니다. 괴팍하게 들리지만 밥해 먹기는 싫어도 집밥은 좋아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양가감정 복합문으로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와 같은 말이 있다.

어쨌거나 집밥은 여러모로 유익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식재료에 조미료를 버무린 식당 밥보다 건강에 좋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이득인 점도 많다. 일회용 포장 용기를 쓰지 않으니 환경과 지구에 대한 죄책감도 적다. 하지만 이런 이로움도 귀찮음 앞에서는 번번이 무너진다. 1인 가구 입장에서 나 혼자 먹기 위해 지난한 요리 과정을 거치는 건 너무 소모적인 일이고, 퇴근 후 방전된 몸과 마음에 요리라는 노동까지 더하고 싶지 않다.

누군가에게는 요리가 즐거운 취미이자 힐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겐 그저 일이다. 장보기, 식재료 다듬기, 볶기, 삶기, 덜어내기, 담기, (먹기는 아주 잠시), 치우기, 설거지는 기본 업무. 그리고 후드 청소와 싱크대 정리, 집 안 곳곳 뱀 음식 냄새를 지워내는 일은 연장 근로에 가깝다. 투자 대비 이득이 적은 비효율적인 일이다.

하지만 역시 집밥이라는 단어를 긍정할 수밖에 없는 건 그와 함께 떠오르는 향수 때문이다. ‘집’과 ‘밥’이라는 글자 뒤에는 가족과 유년기, 엄마와 같은 단어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라떼’만 해도 외식은 정말 특별한 날을 위한 선물이었고, 어린 시절의 나는 늘 집에서 밥을 먹었다. 지금은 식당에서만 먹는다고 생각하는 냉면이나 짜장면, 햄버거, 추어탕 같은 메뉴도 그 시절에는 집밥 카테고리에 속했다.

언제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참기름 발라 구운 김과 간장 종이를 기억한다. 끼니마다 두 가지 찌개를 끓여주시던 엄마, 지금의 나는 그때 엄마의 나이를 훌쩍 넘어섰다. 이제는 가족이 한집에 모여 식사를 하더라도 어린 시절 먹던 집밥과는 다르다. 밥맛과 반찬은 비슷해도 마주 앉은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일까. 혼자 해 먹는 식사도 그렇다. 집도 있고 밥도 있는데, 집밥이라는 단어가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다.

다시 2021년을 사는 1인 가구인 나로 돌아온다. 어쨌든 나는 부지런히 나를 먹인다. 엄마의 손맛은 유명 요리사의 레토르트 식품과 소상공인의 밀키트 제품이 대신한다.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요리도 하고, 내가 만든 음식에서 엄마의 맛을 발견하며 놀라워할 때도 있다. 가능하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쾌적하고 즐겁게 식사를 하며, 다른 생명의 희생이 담겨 있지 않은 음식을 먹으려 노력한다. 오늘도 집밥 같지 않은 집밥을 꼭꼭 씹어 먹으며 건강하고 즐겁고 무해한 인간으로 살겠다고 다짐한다.

독자 필진. 이한아

고양이 두 마리와 살고 있는 비혼 여성. 대학에서 글쓰기를 전공했고 브랜딩 관련 회사에서 14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흥미롭고 다채로운 시선으로 필진 활동을 펼치고 싶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과 공감하고, 소통하게 되기를 바란다.





국가대표 집들이인 나는 요즘, 어쩌다 보니 하루 종일 집 밖을 떠돌며 일하고 있다. 난데없이 목조 주택을 짓는 목수들을 쫓아다니며 집을 짓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냥 보고만 있는 건 아니고, 집을 짓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편집하고, 아주 가끔은 삽질도 하고 망치질도 한다. 암튼 재택근무가 흔해지고 '집콕' 생활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이 시국에 뜻하지 않게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아침 현장에 도착하면 대략 오전 7시 20분 즈음 식사를 한다. 아침 메뉴는 거의 고정적이다. 편의점에서 사온 인스턴트 죽과 비타민 몇 알, 삶은 달걀 한 개. 가끔 에너지 바를 추가하기도 한다. 식사 장소는 자동차 운전석. 목수들의 일상이 그렇다. 식후에는 달달한 인스턴트커피 한 잔을 후루룩 마시고, 오전 8시가 되기 전에 업무를 시작한다. 작년 가을 재미 삼아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매일 출근하며 목수 코스프레를 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그럼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까. 대규모 건축 현장에는 건축 노동자들의 끼니를 위해 일명 '함바집'이라는 게 있다. 점심시간이 되면 작업복 차림의 건축 노동자들이 오후 작업을 위해 밥심을 충전한다. 하지만 목조 주택 현장은 작은 규모라서 함바집이 없고, 그저 현장 인근에 적당한 식당을 골라 해결한다.

이른바 '대놓고 먹는 밥집'을 두세 곳 정해두고, 공사 기간 동안 그날 기분에 따라 가서 먹는 식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목수들의 점심 풍경이 변했다. 목수들이 집밥을 먹기 시작한 것이다.

시작은 그랬다. 점심시간마다 사람으로 바글바글 붐비는 인근 식당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다음 수순으로 시도한 배달 음식은 더욱 성에 차지 않았다. 건축 폐기물만큼이나 쌓여가는 일회용 용기도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결국 작업 시작 나흘 만에 목수들은 결심했다. 집밥을 먹기로. 마침 건설 현장 바로 옆에는 건축주가 살고 있는 낡은 집이 있다. 그래, 우리 저 집 주방을 빌려 밥을 해 먹자!

상추와 깻잎을 씻어 삼겹살을 구워 쌈을 싸 먹고, 커다란 공중 팬에 칼칼한 양념을 넣고 닭고기를 볶아 먹는다. 손두부로 만든 두부김치, 돼지고기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 빨갛게 양념한 두루치기도 목수들이 선호하는 메뉴다.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은,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 반찬은 언제나 대환영. 가끔은 세상 모든 일이 다 귀찮아질 때도 있다. 그런 날은 식당에서 감자탕이나 추어탕을 사와 냄비에 데워 먹기도 한다. 요리 솜씨는 중요하지 않다. 김치와 갓 지은 쌀밥, 땀 흘리는 노동으로 생긴 허기야말로 최고의 밥도둑이니까.

집밥으로 점심을 대신한 후부터 목수들의 점심시간은 훨씬 여유로워졌다. 굳이 차를 타고 식당까지 나갈 필요도 없고, 주차할 곳을 찾아 방향할 필요도 없다. 마스크를 끼고 식당에 입장한 뒤 테이블에 앉아 마스크를 어디에 벗어놓을지 불안해진 눈동자를 멀뚱거릴 필요도 없다. 밥을 먹으며 눈치 보지 않고 담소도 나눌 수 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니 밥을 늦게 먹는 이도 한결 느긋하게 마저 식사할 수 있다. 정말 너도나도 행복한 집밥 풍경이다.

물론 설거지를 전담하는 막내 목수의 노고와 날마다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그 집 거실의 운명은 애써 모른 척 눈을 감는다. 막내 목수와 건축주, 어쩌면 두 사람은 내심 아침마다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비가 오면 '노가다'는 쉬고, 쉬는 날에는 설거지와 음식 냄새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독자 필진. 이태균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서울 토박이. 국적 불문, 장르 불문 아주 오래된 고전영화를 좋아하고 1990년대 이후 일본과 홍콩의 대중음악을 즐겨 듣는다.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기록하기 위해 펜을 들었다.





돌밥돌밥.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는' 엄마들의 일상 줄임말이다. 이 신조어는 우리 집 미취학 아동이 사용한 첫 번째 한국어 줄임말이기도 하다. 얼마 전 한 커피 광고에서 어느 여배우가 돌밥돌밥을 하는 장면이 격하게 공감하던 엄마의 모습이 신기해서 아이의 기억에 깊게 박힌 것인지도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돌밥돌밥 하다가 진짜로 '돌아버리게' 생겼다는 것. 현실은 '돌밥설(돌아서면 밥하고 설거지)'이라 더 지친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집밥에 대한 나의 기억은 따뜻함 그 자체였다. 친정 엄마의 요리 실력이 엄청나지는 않았지만, 매일 집으로 돌아오면 저녁 식탁 위에는 언제나 나와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따뜻하게 차려져 있었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돌아서면 밥하는' 수고로움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서, 돌밥이라는 투덜거림조차 사치였던 것 같다. 친정 엄마도 밥하기 싫은 날이 있었을 텐데, 그 고마운 집밥을 먹고 자라 한 사람의 엄마가 된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다. 집밥이 지겹고 힘든 일로 다가온 건 내가 집밥 생산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19로 엄마인 내가 대면하게 된 '강제 집밥'의 현실은 공포에 가까웠다. 초기에는 부족한 요리 실력이지만 매일 새로운 반찬을 만들겠노라, 의욕을 부린 적도 있다. 한 달쯤 지나면 실력이 좀 늘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오히려 기력만 떨어지고 '도대체 인간은 왜 밥이라는 걸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까지 갖게 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갈 때면 마트에 다녀오는 것도 조심스러웠기에 재료를 준비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덕분에 요리에 재능이 없는 나는 식재료 준비부터 늘 뼈격대기 일쑤였다. 사실 '냉파(냉장고 파먹기)'도 어느 정도 요리 두뇌가 가동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하는 이야기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강제 집밥의 피비우스는 결국 나를 '한 그릇 밥'이라는 종착역에 이르게 했다. 이토록 사랑스러운 식단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다니. 우선 주말 동안 각종 채소와 고기를 열심히 썰고 다져서 소분해 냉장고에 넣어 둔다. 그리고 바쁜 주중에는 카레, 짜장, 굴소스, 케첩, 김치 국물, 멸치 볶음 국물, 어묵 볶음 국물 등 그날 꽃히는 소스에 밥을 넣고 채소와 고기를 추가해 볶아 먹는다. 밥이 달달 볶아지는 동안 달달말이를 하거나 살짝 익힌 두부 등을 함께 놓으면 진수성찬이다. 볶음밥이란 것이 사실 좀처럼 맛이 없기 힘든 메뉴 아닌가. 아이가 잘 먹어주고, 설거지거리 또한 최소한으로 발생되니 엄마의 기쁨은 배가 된다. 언제나 성공적이다.

한 그릇 밥의 장점은 무궁무진하다. 맛있고, 빠르고, 편하다. 아이가 거부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적다. 무엇보다 이제 막 편식하기 시작한 어린이에게 이런저런 재료를 먹여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열을 가해서 달달 볶다 보니 집 안 전체에 기름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것만 해결할 수 있다면 진짜 완벽할 것 같은데 말이다.

그러나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한 그릇 밥' 전략은 평일이나 가능한 일. 세 번의 끼니를 고스란히 집에서 해결해야 하는 주말에는 방어하기 버겁다. 물러설 곳이 없다. 그래서 만든 우리 집만의 규칙이 있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모였을 경우, 하루 세 번의 식사 중 반드시 한 번은 배달 음식을 먹는다. 대부분 아이가 함께 먹을 수 있는 메뉴를 고르게 되지만, 설렁탕이나 갈비탕 같은 국물 요리를 넉넉히 포장해서 먹고 남으면 다시 주중의 한 끼로 활용하기도 한다. 요리하는 재능은 없지만, 잔머리는 제법 쓰는 것 같다. 덕분에 돌밥돌밥 전쟁에서 지치지 않고 그럭저럭 살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가 대견하고 기특한 일이다. 다만 훗날 우리 집 미취학 아동이 '집밥'에 대해 글을 쓰게 되면 어쩌나, 조금 걱정된다. 그 시작은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다. "나에게 집밥은 볶음밥의 진화 과정에 대한 경험 그 자체다."

#### 독자 필진. 이혜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음에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 독자.

출산 전까지 편집자로

일했고, 육아를 시작하며

'경단녀'가 됐다.

아이와 함께 울고 웃는

육아맘의 행복한 일상을

진솔하고 담담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바람과 물, 호흡하는 공기에도 흐름이 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순리대로 흘러야 조화롭다.

그래서 우리는 환기를 한다.  
청정한 공기로 일상을 더 쾌적하게 만든다.

---

# Mind



요즘처럼 공기의 밀도가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을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집콕 생활과  
처음으로 절실히 느낀 '집'이라는 공간의 소중함.





창을 열고 힘껏 들이마시는 신선한 공기 한 조각,  
마음에 쌓인 생각의 유해물질을 환기를 통해 날려보내고  
당신, 지금 여기서 이대로 행복할 것.



나를 '쉬게' 하는 집,  
더 나아가 '숨 쉬게' 하는 집에서.





## 건강한 생활에 진심인 편

매일 먹고, 쓰고, 입는  
소소한 행위로 일상과  
지구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저탄소 아이템.

### 환경을 생각하지만 고기 반찬은 먹고 싶어!

동물이 어떻게 길러지고 도축되는지, 축산업과 육류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환경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알고는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을 위해 지구인컴퍼니는 작고 흠집이 있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난이 농산물로 '언리미트 Unlimeat'라는 식물성 대체육 간편식 브랜드를 만들었다. 재료는 B급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가치는 결코 B급이 아니다. 농가를 돕고,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며, 지구와 상생하기 위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팬에 굽거나 볶기만 하면 저탄소 한 그릇 요리가 똑딱 완성된다. 가끔은 대체육을 소비하고, 어떤 날은 간헐적 채식을 실천하며 조금씩 동참해보는 것도 썩 괜찮은 일이 아닐까.



Item

### 달걀이 왔어요, 새싹 담은 달걀이 왔어요~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과연 플라스틱과 비닐 포장재를 줄이거나 부지런히 재활용하는 것만이 답일까. 그리스의 디자이너 조지 보스나스 George Bosnas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에너지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재활용을 넘어 재탄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그가 만든 달걀 상자는 종이 펄프와 밀가루, 전분 그리고 씨앗으로 만들어졌다. 달걀을 다 먹은 후, 이 상자에 물을 뿌리면 30일 안에 귀여운 새싹이 돌아난다. 달걀 상자 형태 그대로 화분처럼 키워도 되고, 잘게 부수어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도 싹이 난다. 식물이 시들면 어떡하냐고? 화단에 놔두기만 해도 땅을 비옥하게 하는 양분이 되니, 그걸로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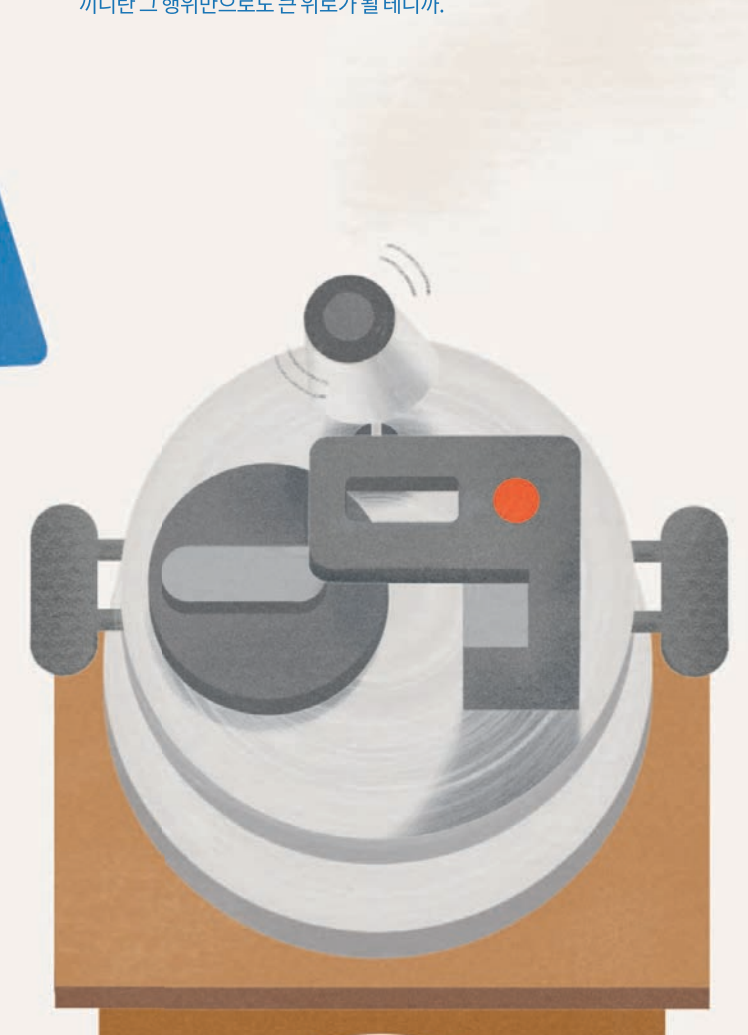
## 그녀는 지금 친환경 생리중

‘순면’이라는 단어에 그저 좋은 생리대인 줄 알았다. 일회용 생리대의 순면 커버 안에 온갖 화학물질과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흡수체, 방수 천이 들어 있는 것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사용하는 일회용 생리대의 양은 40년 기준 약 1만 개 이상이다. 몸에 좋을 리도 없지만, 쉽게 썩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다. ‘목화송이협동조합’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과 지구 모두를 위한 면 생리대를 한 땀 한 땀 공들여 제작한다. 순면은 기본, 바느질에 사용한 실까지 무형광으로 만들었다. 바쁜 생활 중 언제 빨아서 다시 사용하냐고? 속지가 분리되기 때문에 샤워할 때 찬물에 담가 쓱쓱 빨기도 쉽고 건조도 빠르다. 귀찮음을 넘어서는 장점이 있다고 하니 한번 경험해 봐도 좋겠다.



## 미세먼지 ‘나쁨’에 대응하는 혼밥 감성

1인 가구에게 요리는 참 번거로운 일이다. 모처럼 집에서 만찬을 즐겨볼까 하다가도 집 안에 남은 미세먼지와 냄새를 생각하면 금방 의욕이 떨어진다. 작고 아담한 집일수록 냄새는 빨리 퍼지고 환기는 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밥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1인용 압력밥솥’이 좋은 대안이다.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감도는 고슬고슬한 슬밥도 7분이면 OK! 압력밥솥의 최대 장점인 짧은 조리 시간 덕분에 미세먼지나 가스레인지 사용할 때 나오는 유해물질도 그만큼 적게 발생한다. 기존 압력밥솥에 비해 작고 가벼워 보관과 설거지도 쉽다. 배달 음식과 외식에 지친 그대, 오직 자신을 위해 밥을 지어보자. 1인 가구에게 끼니란 그 행위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테니까.



# 도시의 안녕을 지키는 트렌드 보고서

환경과 사람에게 이로운 도시를 만드는 쾌적한 움직임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 그래서 우리는 옥상으로 간다

지금 전 세계 옥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주목하자. 옥상이 버려진 공간에서 가능성의 공간으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가치 창출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인공토양을 이용한 옥상 텃밭과 정원은 기후변화 시대의 중요한 해결책으로 자리잡았다. 집이나 건물 옥상에 정원을 가꾸는 일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그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다. 옥상 정원은 달아오른 도시의 온도를 낮춰주고 자동차와 에어컨 실외기 등이 뿜어내는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장마철에는 빗물을 저장해 홍수를 예방하고, 산성비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해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모두 옥상정원의 힘이다. 도시인이라면 대부분 자신만의 소박한 정원을 꿈꿔 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옥상으로 간다. 전망을 감상하는 기능을 넘어 편하게 휴식하고 식사를 즐기며, 잠시나마 자연의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그곳으로.

Idea

##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다고?

건강을 생각하는 의식의 흐름에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로 ‘이삭을 줍다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다.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해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더니, 최근에는 대규모 캠페인과 챌린지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튼튼한 두 다리, 쓰레기 담을 봉투, 장갑이나 집게만 있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플로깅의 가장 큰 장점.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 덕분에 달리기만 하는 것보다 칼로리도 더 많이 소모된다. 내가 달려온 길이 깨끗해지는 착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플로깅의 매력! 날마다 조금씩 ‘흡흡줍줍’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 당연하다.





# 당신의 나무를 세어보아요!

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미세먼지의 양은 약 35.7그램!  
땅에 나무를 심지 않고도  
생활 속에서 나만의 푸른 숲을  
가꾸는 방법은 없을까?



## To Do

# Dictionary

## 알아두면 참 좋아요~ 친환경 인증 마크 꼼꼼 사전

우리가 선택한 제품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생산되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안전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그렇다면 제품에 부착된 라벨을 찬찬히 살펴보면 된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친환경 인증 마크!

방사선, GMO, 방부제, 광물 비료 등  
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간간하게  
발급하는 독일 유기농 인증.

화장품에서 자주 보이는 프랑스 인증.  
천연 성분 95%나 유기농 성분이  
10% 이상 함유된 제품만 받을 수 있다.

제품 포장의 소재나 제조 방법, 디자인 등이  
친환경적인 '착한 포장' 제품에 부여한다.

제품의 제조 이전 단계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탄소발자국 인증이다.

CARBON TRUST  
CARBON NEUTRAL

온수매트 등 전기용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일정 수준 이하로 방출되는 제품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준다.

3년

미국 유기농산물협회에서  
발급하는 국제 유기농 인증.  
유기농업 실시 후 3년이  
되어야 부착할 수 있다.

우리 정부에서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마크로,  
생산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고 자원을 덜 소비하는  
제품에 부착해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 친화적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게 도와준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  
인증 마크이다. 성능 평가를 통해 1~3등급,  
등급 외 등의 등급을 부여하고 마크를  
부착해 정보를 제공한다.

95%

영국 토양협회에서 발급하는 유기농 인증,  
주로 생리대나 유아용품 등 최소 95% 이상  
순수 유기농 성분을 사용한 제품에만 발급한다.

생산 공정이나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한 제품에  
부여한다.

WMF

벌채와 다시 심기 등의  
운영 정책이 적용된  
산림 경영이 실천되는  
숲에서 얻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식  
지정한 미국 위생협회에서  
발급하는 가장 권위 있는  
물 관련 인증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임을 의미한다.

재활용 원료로 만든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환경 친화적인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제산림관리협회가 발급하는  
숲 관련 인증.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숲,  
또는 그 숲에서 생산된 목재나 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마크다.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키친플러스가 있는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아이와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밀키베이비 김우영 작가가 직접 체험했다.

## 엄마, 재가 연기를 다 먹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 저녁 시간,  
주방에서 요리할 때도  
일상의 모든 순간,  
모든 공간을 쾌적하게!

# 힘내요, 우리 지구!

<매거진 N>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BETTER N' 캠페인을 통해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목소리를 만나보세요.

지구야!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너무 아프게 만들어서 미안해. 코로나19로 전 세계인이 많은 활동을 멈추는 동안 자연과 동물이 편하게 숨을 쉬게 되었다고 해서 한편으론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앞으로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일회용품도 안 쓰고 에너지도 아끼면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지켜줄게. 항상 깨끗하고 푸르게 빛날 지구를 응원해. ♥

@You Lim



우리가 너를 위해 이것저것 노력하고 있으니 너무 겁내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서 기다려주기를 큰 소리로 응원할게. 힘내. 아자아자! ^^

@배은경

비닐봉지는 땅에 묻었을 때 500년이 지나도 거의 썩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비닐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장을 보거나 마트에 갈 때 장바구니를 꼭 가지고 가요. 항상 가방 안에 에코백을 넣고 다니다가 꺼내서 쓰니 정말 유용하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생활 속 환경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haasjoo0321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지구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시에서 양봉을 하는 사람, 건물 옥상에 텃밭을 만든 도시농부, 페트병으로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 땅의 기운을 믿는 요리사까지. 지구를 위하는 일은 결국 우리 삶을 위한 일이에요. 잠시 빌려 쓰는 지구라는 사실을 명심할게요.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깨끗한 지구를 오염시키는 행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bohui.song

당장 10년 전, 20년 전을 생각해보면 날씨는 더워지고 이상기후와 미세먼지 등 환경이 점점 나빠졌음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사는데도 이 정도인데, 지구 전체로 보면 얼마나 지구환경이 나빠지고 있는지 상상이 안돼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꼭 기억하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모두가 환경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임윤슬

정말 쉽지 않겠지만 지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도 뒤늦게 깨닫고 모두 환경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기를 응원합니다.

@babypori

아이가 생기고 나니 너한테 더 미안해지는 것 같아. 내가 살 세상보다 내 아이가 살 세상이 더 좋아지기를. 편리함만 보고 살아왔는데 조금 더 아날로그적으로 생활하면서 내가 아프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마워. ♥

@euna.quan

내 고향은 섬인데 해양 쓰레기 때문에 너무 걱정입니다. 각종 어구부터 페트병 등이 파도에 밀려와서 치우기 바빠요. 동네 어르신들은 배 운행 중 자살한 사고도 자주 당합니다. 물론 해양 생태계도 점점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구를 위해 바다를 오염시키는 해양 쓰레기를 줄여나가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요.

@kimdhee0524



기후변화로 날씨가 급변하고, 북극에 얼음이 녹아 동물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있었어. 너무 늦게 알아서,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널 아프게 해서 미안해. 앞으로 건강하고 푸른 너를 위해 저탄소 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할게.

@정은옥

우리가 그대의 품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바라며 어리광을 부렸기에, 그것을 받아주느라 그대가 아픈 것 같아 고맙고 미안해요. 이제는 그대와 함께 미소 지으며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게요. ^^

@다운

지구야, 있는 듯 없는 듯 내가 지나간 자리 티 안 나게 살다 갈게!

@apple\_mint11



예전에는 '나 혼자 노력해봐야 얼마나 달라지겠어? 지구를 지키는 노력을 꼭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이 자각하고 있어.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이제는 점점 변화될 거야. 우리를 믿어줘. 힘내, 지구야! 우리 같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thesun\_spring

건강하던 널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 미안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널 아프지 않게 작은 부분부터 살피고 지켜줄게. 지구야, 우리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

@punykim



**지구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구 응원단으로 선정되신 분들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즘 지구가 많이 아프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나를 위한 마음보다는 앞으로 더 살아갈 날이 많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작은 것부터 바꾸고 실천하려 노력 중입니다. '나 하나쯤'이 아닌,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보다 좋은 공기와 맑은 물, 예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갈게요. ♥ 나도 파이팅, 지구도 파이팅~!!!!

@mymelody\_sinyoung



Review





아직 다 피어나지 않은 꽃망울들이  
수줍은 얼굴로 인사를 건넵니다.  
아직 세상은 따뜻한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당신과 함께 힘을 내고 싶다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필요할 때  
우리 다시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로 해요.

**발행일**

2021년 5월 14일(통권 제156호)

**발행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22  
(여의도동,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신관) (주)경동나비엔

**담당**

IMC팀 박은빈

**기획·디자인**

리틀바이리틀

**사진**

B-Side

**일러스트레이션**

Atelier Margie & susu

**인쇄**

(주)나씨앤피

**문의**

02-3489-2489

**팩스**

02-3489-2296

**홈페이지**

www.kdnavien.co.kr

**경동나비엔 소셜 미디어도  
지금 방문해보세요!**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kd\_navien

 페이스북  
facebook.com/NavienKorea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dnavien\_official

**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  
경동나비엔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이메일을 통해 소중한 독자 후기를 보내주세요.  
무료 정기구독 신청과 함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음료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hello\_n@kdiwin.com**

NAVIENT  
LIVING AND ENVIRONMENT
NAVIENT AIRONE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상의 모든 순간, 모든 공간을 쾌적하게

##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에어모니터

  
청정환기유닛

  
에어클론트롤러

**우리집에도 환기장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환기장치란 천장의 공기 통로와 디퓨저를 통해 실내외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장치로,  
2006년 이후 인허가된 아파트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집 다용도실 등에 설치된 환기장치와 천장의 디퓨저를 확인해 보세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공기청정과 청정환기를 동시에**



공기청정으로 실내 내부의 공기를 깨끗하게 걸러 순환시켜 줍니다.  
청정환기로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바깥의 공기는  
깨끗이 걸러서 들어옵니다.

**Check Point!**

- 정정 필터시스템    0.01µm 극초미세먼지 제거는 물론,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살균
- 에어모니터        실시간 실내 공기질 정보를 측정해,  
공기질 변화를 한눈에 확인
- 자동모드            우리집 공기질 상태에 맞춰 최적의 모드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공기질 관리



# LIVING AND ENVIRONMENT



## 내 삶을 이롭게 하는 구독

우리 모두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매거진 N>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지구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건강한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당신에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내 삶을 이롭게 하는 구독**

우리 모두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매거진 N>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지구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건강한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당신에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